



4일 오전 오후로 6번째 열린 '나주혁신도시 선남선녀 소중한 인연 만들기' 행사장에서 참석한 23쌍의 참가자들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 혁신도시 '짝 2호' 탄생할까

16개 기관 남녀 23쌍 '인연만들기' 행사

첫 인연 결실 한국현·최윤정 부부 화제도

나주시는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16개 기관 직원 남녀 23쌍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도시 선남선녀 소중한 인연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젊은 세대 나주 정착과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행한 선남선녀 만남의 행사는 올해가 여섯 번째로, '제2호' 짝이 탄생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1호 커플은 지난 2008년 실시된 '혁신도시 이주기관과 나주시 기관 단체와의 만남' 행사로 첫 인연을 맺은 뒤 사랑을 키워오다 지난 3월1일

웨딩마차를 올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현(37)씨와 나주시청 최윤정(33)씨 부부다.

이들 참가자들은 4일 천연염색 체험을 시작으로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로테이션 그룹대화, 퀴즈게임, 댄스타임 등 상호간의 친교의 시간을 가진 뒤 5일에는 혁신도시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바로연 결혼정보(전지연 대표)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 농어촌공사공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전KDN(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우정사업본부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이전공공기관과 나주시청, 동강초등학교, 동신대학교, 농업기술원, 전남식품산업연구소, 광주은행 등 나주지역 공공기관 남녀직원 46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믿음직한 직장에서 일하는 배필을 찾고, 나중에 나주에 내려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자연스럽게 만든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다"며 좋은 반려자를 찾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나주시 윤희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금년부터는 년 1회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이번 행사를 토대로 커플과 희망하는 대상자들과 하반기에 다시 한번 만남의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커플이 탄생하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송영철기자 ycsn@

日 대학 럭비팀 轉訓유치 등 강진군 스포츠마케팅 '쑥쑥'

강진군이 일본 럭비팀 하계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등 해외 스포츠마케팅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진군은 4일 "스포츠 마케팅차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일본을 방문중인 강진원 군수 일행이 지난 3일 럭비, 축구, 야구 등 16개 스포츠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일본 유통경제대학이케다 도미오 총장과 전지훈련 관련 업무를 협의하고 럭비팀 하계전지훈련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20일까지 110명의 일본유통경제대학 럭비 선수단이 강진에서 하계전지훈련을 갖기 위해 방문하게 된다. 군은 내년부터 축구, 유도 등 강진의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하계전지훈련을 유치할 방침이다.

강진군은 아시아 럭비 최강국인 일본 럭비팀의 전지훈련 유치는 일본 선수들과 친선 경기를 선호하는 국내 실업팀, 대학팀, 고등부 등 15여개 팀 선수단 500여명의 강진 방문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고 이를 추진해왔다.

군은 그동안 일본 대학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럭비전용경기장, 웨이트 트레이닝장, 수영장 등 최적의 스포츠 인프라를 적극 홍보한데다 강 군수가 직접 일본을 찾아가 설득하면서 유치



에 성공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지훈련은 별도의 대회유치지원금이 없고 시설된 체육시설 등 장소만 제공할 뿐 선수단의 숙박비, 식비, 기타 경비 등은 전지훈련 온 선수단이 전액 부담한다"며 "따라서 국내 각종 전국규모대회보

다 강진지역의 경제적 파급 체감효과가 2~3배 정도 크다"고 말했다.

한편 강 군수 일행은 이바라기현 류가사키시청을 방문해 양국 지자체 간 스포츠교류 등 후호 증진을 위한 업무 협의를 가졌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주민홍보 제도지 구입 폐지해야"

영암지역 주민들 "소외계층 복지비 사용" 한목소리

영암에만 여전한 '주민홍보용 제도지' 구입 관행이 남아있어 이에 대해 폐지 목소리가 높다.

4일 영암군에 따르면 '관서용 신문 구독' 비용으로 올해 1억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방일간지 18개사와 중앙일간지 7개사, 지역신문 3개사의 신문 구독료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이다.

각 실·과에서 신문구독료 문제로 해당 언론사와 마찰을 빚자 영암군이 별도의 예산을 배정해 일부 언론사에 매달 똑같은 금액을 나눠 신문대금을 치르는 것이다.

하지만 몇년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제도지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면서 대부분 이를 폐지했다. 제도지 폐지 이후 해당 신문사들이 자체적인

경쟁을 통해 지역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지만 유독 영암군만 제도지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박모(57)씨는 "영암군민의 열세를 낭비하는 관서용 신문의 구입관행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제도지 등의 구입예산은 독거노인 등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소외계층을 돕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장성농기센터, 농기계 보관창고 375㎡ 증축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4일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지난 2일 농기계 보관창고 375㎡를 증축했다"고 밝혔다.

군에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해 신기술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구입하면서 보유시설면적을 확대한 것이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55종

256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1500개 농가에 3100여대를 대여했다. 올해는 농용굴삭기, 못자리형성기, 퇴비살포기, 논둑제초기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담양소방서, 가입 독려

담양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이 다음달 22일로 임박함에 따라 관내 미가입 다중이용업소 대상에 대해 의무가입 독려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되는 기존 영업시설들은 다음달 22일까지 반드시 의무 가입해야한다. 해당 업종은 음식점과 제과점,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피시방, 게임업, 노래연습장, 콜라텍, 전화방, 수면방, 목욕탕, 찜질방, 실내골프연습장, 실내관공사격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전국 22개 업종이다. 일부 5개 업종의 경우 규모 150㎡ 이하의 업소는 2015년 2월23일까지 가입이 유예된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전북 단신

혁신도시 이전 지방행정연수원 이용객 대상

내달 5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신설

이용객 연간 20여만명 예상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전북혁신도시에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전주시는 4일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행정연수원에 연수생 입교가 시작됨에 따라 8월5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 노선(72번) 버스는 전주역~고속·시외버스터미널~도청~지방행정연수원을 20분 간격으로 오간다. 시는 지방행정연수원이 총 149개

과정을 운영, 연간 20여만명의 공무원이 입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선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일대를 운행하는 기존 2개 노선(241, 291번) 3대도 현행대로 운행된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10여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되면 입주기 관 직원과 방문객 등 이용 수요를 정밀 분석,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 군산공항 국제선 언제 뜨나요

미군 반대 6년째 담보...새만금 투자 유치 결림돌에 대체부지 물색 여론도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문제'가 미군의 반대로 수년째 제자리걸음만을 하고 있다.

국제선 취항의 열쇠를 쥔 미군 측이 '안보문제'를 이유로 들어 국제선 신설 반대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타결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4월, 2차례 정부와 미군 측이 군산 미공군 비행장내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전북도는 정부를 통해 "새만금 투자유치 등을 이끌어 내려면 절대적으로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이 성사돼

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미군 측은 우 켜도 하반기에도 이 문제를 재논의 할 계획이지만 미군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전북지역에서는 군산공항을 대체할 새로운 부지 물색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든 미군과 협상을 벌여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취항시키겠다는 것이 우리도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김제공항 재검토 여론 등 새로운 부지 물색에 대해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놓고

두 차례 실무협상을 벌인 정부와 미군은 올 하반기에도 이 문제를 재논의 할 계획이지만 미군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전북지역에서는 군산공항을 대체할 새로운 부지 물색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든 미군과 협상을 벌여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취항시키겠다는 것이 우리도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김제공항 재검토 여론 등 새로운 부지 물색에 대해 손사래를 쳤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 '우리동네 보물찾기'

13일 영원면 일대서 역사체험 프로그램 은선리 3층석탑·백제 돌방무덤 등 탐사

소규모 마을공동체에서 소중한 지역자원을 발굴하는 '우리동네 보물찾기' 프로그램이 열린다.

정읍시는 4일 "푸른정읍의제 21추진협의회(이하 정읍의제)가 주최하고 푸른정읍의제21추진협의회 지역경제분과위원회와 정읍N사람 지역활력연구소가 주관하는 '우리동네 보물찾기'가 오는 13일 정읍시 영원면 일대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보물찾기는 정읍시 영원면 소재지의 은선리 3층석탑, 백제 돌방무덤, 백제기의사기념관, 송참봉조성돈대 등을 탐사하며 참가자들이 지역 내 몰랐

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정읍시 영원면 일대 향토사학자 광형주씨가 진행을 맡게 된다.

정읍의제21과 정읍N사람은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민들이 몰랐던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가접수 마감일은 10일까지로,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다. 기타문의는 정읍의제21 지역경제분과위원회(063-532-1474), 정읍N사람(063-532-8118)로 하면 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고창 구시포 해수욕장 개장

고창군 구시포 해수욕장이 4일 문을 열었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강수 군수, 박래환 군의회의장 및 군의원, 임동규·오균호 도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주민, 관광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군 구시포 해수욕장이 4일 문을 열었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강수 군수, 박래환 군의회의장 및 군의원, 임동규·오균호 도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주민, 관광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음창원기자 cy0370@kwangju.co.kr

단신

순창, 日 규슈지역 홈스테이 참가 학생 모집

순창군과 순창군국제화연구회(회장 김상범)는 일본 규슈지역 홈스테이 및 문화탐방 참가학생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순창군은 청소년들의 국외 홈스테이를 위해 매년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순창군국제화연구회는 학생 모집과 홈스테이 진행 등을 담당하고 있다. 홈스테이는 11월7

일부터 12일까지 5박6일동안 일본 규슈 후쿠오카시 일원에서 이뤄지며, 일본문화와 유산 탐방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과 역사인식 고취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재학생으로, 5~6학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해당되며, 총 20명을 모집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시민의 장' 수상 후보자 추천서 접수

남원시는 4일 "'남원시민의 장' 수상 후보자 추천서를 오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남원시청 총무과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민의 장'은 문화체육장, 공익봉사장, 산업근로장, 애광장, 효열장 5개 부문으로 나뉘며, 추천 접수된

후보자들에게 대해 공적내용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12일 개회 예정인 시민의 날(총부제)에 열린다.

/남원=백선기기자 bs88787@

부안 전국 요트대회 18~23일 개최

국내 해양관광 레저스포츠의 메카인 부안에서 전국 요트대회가 개최된다.

부안군은 4일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 동안 격포항 요트경기장에서 '제27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해양 요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요트협회가 주최하고 전북도,

전북요트협회, 부안군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어 국내를 대표하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시·도의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 일반선수 및 임원 등 6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부안=장재용기자 jiy0681@

정읍, 농가 예비모 1900상자 공급

정읍시는 이상기온, 병해충, 제조제 피해 등으로 벼 육묘 및 이앙 실패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에 3일 예비모를 공급했다.

이번에 공급한 예비모는 시에서 예비모자리를 설치해 키운 것으로 모두 1900상자이다. 공급 예비모의 품종은 중만생종으로 신동진벼 900상자, 새

누리벼 1000상자이며, 모두 13농가에 무상공급됐다.

시는 "뚝자리를 실패한 농가에 예비모자리를 설치 지원함으로써 묘수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원활한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예비모 공급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